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부활 제목 :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 누가복음 24장 36-49장

36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 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 불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라 (눅24:36-49)

2000년전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약속대로, 예언대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총체적인 승리를 거두셨다.

그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눈이 가리워져서 구약성경에서 예언해 준 말씀과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여러 가지 부활에 관련된 사건들을 자신들의 개념 속에 재구성하지 못하였다.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다.

그들은 가면서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를 의논하였다.

그러나 돌은 이미 옮겨졌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으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 주었다.

‘He is not hear, for He is risen!’

여자들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 주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갈릴리로 가지 않았다.

그러자 그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스스로 부활을 증거 하셨다.

마침 그때 도마는 없었으므로, 그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주간이나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님은 8일 후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다시 나타나셨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면서 부활을 믿으라고 하셨다.

아마 그 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 모처 산으로 갔을 것으로 여겨진다.(이곳이 방해받지 않고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곳이었을 가능성

이 크고, 이후 마태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주 무대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후에 될 일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셨을 것이다.

오순절이 가까워오자 제자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 왔다. 아마도 부활 후 30-40일 정도 지난 시기였을 것이다.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오순절 전 10일 경, 유월절 이후 40일 경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 승천 하신 후 10일이 지난 다음, 오순절이 시작되는 날(주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오늘 말씀은 특히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사건을 풀어 주신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이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다시 발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랐으며, 벌벌 떨었다.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부활을 믿으라고 하셨다. 여전히 제자들은 믿으려고 하기 보다는 놀라는데 정신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은 먹을 것을 달라 하여 생선 한 조각을 드셨다. 이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다시금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들을 인용하시면서 다시금 예전부터 가르치셨던 것을 확인 해 주셨다.

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귀도 열고, 눈도 열어야 하는데 마음도 열어야 한다.

귀와 눈이 열려도 믿지 못하고 놀라기만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내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하지만,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저 신기한 일로만 여겨 놀랄 뿐이다.

놀라는데 그치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런데 언제 마음이 열리는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열리는가?

먼저 귀가 열려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야 한다. 외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눈도 열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야 한다. 귀가 열려 있으면 도처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눈에 들어올 가능성이 점점 커져간다.

성경을 공부하되 구약성경부터 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마음 속에 있는 미혹과 의심과 미신과 무지가 한껏질씩 벗겨지면서 드디어는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간다.

그 이후에 비로소 마음이 열린다. 누가 마음을 열게 하는가? 예수님이 마음을 열게 한다.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3:20)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 마음이 열린다.

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은 역사상 유일무이한 신비로운 사건이었다.

(물론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구약에 두 번, 신약성경에 세 번 등장한다. 신약의 사건들은 모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계시적으로 일부러 만드신 사건이다. 즉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계시하신 사건이다. 더불어 예수님 자신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교육하려는 사건이었다. 부활은 아니지만, 구약성경에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마치 휴거를 상상하게 하는 사건이다.)

영생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다.

영생이 없다면 기독교는 종교에 불과하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가르침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신비스러운 말씀들은 옛날 이야기일 뿐이니 도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잘 전하고 지키고 문명인답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생은 무관심해도 좋은 주제가 아니다. 결국 인생은 영생의 유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된다.

영생을 취하고 누리는 자와 영생에 무관심한 자의 결국은 크게 다르다.

(영생은 여전히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이만희가 이 점을 노리면서 거짓 영생을 남발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2-3년 후면 영생을 준다고 하니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 10년이 지나도 영생을 주지 않았지만, 여전히 2-3년만 더 기다리자고 하면서 지금까지 참아왔으니 2-3년 더 못참을까 하면서 2-3년이라는 말에 속아서 거짓 영생을 얻으려고 저렇게 안달하지 않는가?)

그러나 진정한 영생은 현실도피가 아니다.

진정한 영생은 생명을 살리고, 활성화 시키고, 사는 맛이 나게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우리는 진정한 영생을 맛보고, 경험하고, 전파하고 확장 시키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 부활 제목: 누구를 찾느냐 말씀: 요한복음 20장 1-18절

1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3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 또 머리를 찢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찢던 대로 놓여 있더라

8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13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20:1-18)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왜 울까? 슬퍼서.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던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볼 수 있는 세상만 보니 울음이 나온다.

-왜 우느냐는 왜 슬퍼하느냐. 왜 답답해 하느냐, 왜 섭섭해 하느냐,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느냐, 세상이 이러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는거 아닌가? 하고 있지 않느냐?

-원래 사람들끼리 뭔가 하려고 하면 그런다.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13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찌하여 우느냐, 울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뻐해야 하지 않느냐. 시체를 뒹하러 찾니? 시체를 부둥켜 안고 더 울어재끼려고 찾니? 죽은 시체에게 향유를 바르는 것이 너의 목적이니?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지 않았니? 예수님도 이미 너의 하신 일을 칭찬하지 않으셨니? 더 바를 향유가 남아있니?

- 오직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세상을 보아야 한다.
-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여 주시는 세상을 보아야 한다.

##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 예수를 보아도 예수신줄 모르는 마리아.
- 결코 살아나셨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으니 당연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보이지 않는다.
- 내가 믿어야 보이는 것이 있다.
- 내가 소망해야 보이는 것이 있다.
- 내가 사랑해야 보이는 것이 있다.

##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가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 예수님이 다시금 왜 우느냐, 도데체 왜 시체를 찾느냐
- 답답하구나. 정신을 차리려므나.

##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 말썸은 평상시 마리아를 자주 부르는 톤으로 부르셨을 것이다. 마리아로서는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확신과 함께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자신만의 세계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 랍오니;마리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에서는 평상시에 답하던 대로 '선생님' 이라는 말이 튀어 나왔다.

- 그녀는 죽은 예수를 찾았으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자!
-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은 죽어 계시는가? 살아 계시는가?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20:1-18)